

[기획] >> 3면
우리학교 흡연구역

[심층] >> 5면
국가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문제

[사회] >> 8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인물] >> 12면
정재현 영어 강사를 만나다



우리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17:1로 서울특별시 10개 대학교 평균인 1.32:1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기숙사 수용률 부족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현황△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우리학교 창업동아리 소속 팀 '라이브 워드', 대학상권 외식업 맞춤 홍보 서비스 앱 '마이무라' 출시해

지난달 우리학교 창업동아리 소속 팀 '라이브 워드'(Live with)가 대학상권 외식업 맞춤 홍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이무라'를 정식 출시했다. 마이무라는 대학상권의 외식업자가 스매장 정보△이벤트△할인 등 대학생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앱이다. 외식업자가 라이브 워드에게 마이무라 서비스의 구축료와 광고비를 지급하면 라이브 워드가 외식업자에게 홍보 공간을 제공하는 구조다.

라이브 워드는 대학상권 외식업자 32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중 79%가 대학생 대상 홍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착안해 본 사업을 기획했다. 이후 라이브 워드는 스가게 영업시간△대학상권 할인 및 이벤트△맛집 리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리뷰와 댓글 기능을 통한 대학교 맛집 커뮤니티 구성을 주 기능으로 한 마이무라를 개발했다. 마이무라는 앱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세세한 대학상권 정보를 전달하기에 대학생은 주변 매장의 이벤트 및 혜택을 편리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외식업자가 효율적으로 매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난 1월 정식 출시된 마이무라는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흥

분을 시작해 운영 중이다. 현재는 우리학교 상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약 250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연재(자연·생명공학 18) 라이브 워드 대표(이하 최 대표)는 "계획보다 앱 출시가 지연돼 아직까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앱 서비스 대상 지역을 우리학교를 넘어 단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상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브 워드는 최 대표를 비롯해 우리학교 △이승용(인문·언어인지 17)△이태훈(공과·산업경영 16)△조성현(공과·컴전 18)△지우진(응인 22) 씨로 구성됐다. 또한 라이브 워드는 마이무라의 경쟁력과 창업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지난해 우리학교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응인시 대학창업경진대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최 대표는 "마이무라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의 편의 개선을 넘어 대학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대학생이 지닌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게 라이브 워드의 목표다"고 밝혔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를 위한 모금 운동 시작해

지난달 9일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이하 터키어과)는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덮친 강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송준엽(아시아·터키어 18) 터키어과 학생회장은 "국내 유일의 튀르키예 학과로서 이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모금 활동을 통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튀르키예에 은혜를 갚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종진 터키어과 과장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터키어과는 추위로 고통받는 현지 사람들을 위해 △교수△교직원△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구조물품 기부 운동도 시작했다. 터키어과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본관△설캠 국제학사 1층 로비△글로벌캠퍼스 백년관 1층 로비에 구조물품

함을 설치해 △가스튜브△겨울 의류△분유와 같은 생필품을 기부받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기부한 구조물품은 학교 차원에서 튀르키예 항공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지역으로 옮겨질 계획이며 모금액은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 터키어과는 지난 1973년 개설 이후 50년간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양국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우리학교는 국제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차원의 모금이나 성명활동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며 대사 초청 간담회와 특별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해외 입출국 코로나19 검사도 빠르고 정확하게, 삼광의료재단에서!

삼광의료재단 해외 입출국 코로나19 검사센터

서울강남검사센터 | 서울강북검사센터 | 김포공항검사센터 | 인천검사센터 | 부천검사센터 | 수원검사센터 | 부산검사센터

삼광의료재단은 2020년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에 걸쳐 해외 출입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국가 보건방역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표번호 1661-5117
www.smlab.co.kr



* 자세한 사항은 삼광의료재단 홈페이지 및 코로나19 검사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우리학교,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우리학교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제 2회 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오리엔테이션(HUFS Freshman Academy) (이하 신입생 오티)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이 주관하고 교육 혁신원이 지원한 본 행사는 우리학교 신입생이 입학 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역사 등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대학생이 갖춰야 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8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TRIL: Today's Reader, Tomorrow's Leader 독서 및 토론△Lecture△Activity란 주제로 신입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신입생들은 TRIL: Today's Reader, Tomorrow's Leader 독서 및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예술△일반 분야의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독서과제를 수행했다. Lecture 프로그램에선 공간·미래·연극·영화를 주제로 한 강연△Matching with seniors△Global Manners 활동 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Activity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 및 박물관 방문△음악공연 감상 및 연극 관람△외국대사관 방문 활동 등이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월 31일 우리학교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클래식 강연을 개최했다. 우리학교 성용원 초빙교수의 클래식 강연을 시작으로 3명의



▲제2회 우리학교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연주자가 △바이올린△클라리넷△피아노 합주를 선보였다. 지난달 1일엔 박정만 우리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가 공연과 연극의 유래 및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신입생들은 대학로에서 연극 '서툰 사람들'을 관람하며 강

연을 통해 배우 연극 이론을 실제 연극 관람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9일엔 신입생이 조를 이뤄 이번 행사에서 우리학교와 협력한 △라트비아 △멕시코△몽골△불가리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스웨덴△아제르바이잔△이탈리아△태국△포르투갈 대사관에 방문했다. 신입생들은 대사관 방문 전 스페인과 페루 대사를 역임한 박희권 우리학교 ID학부 석좌교수로부터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 영역에 대한 특강을 수강했다. 이후 직접 대사관에 방문해 각국 대사들로부터 해당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입생 오티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유채원(서양어·포르투갈어 22) 씨는 "행사를 통해 한 달간 80명의 23학번 신입생과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하며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라트비아 대사관에서 아리스 비간츠(Aris Vigants) 주한 라트비아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신입생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헝가리어과, 에코프로와 2차전지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해

지난달 10일 우리학교 헝가리어과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본관 중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에코프로(EcoPro)와 2차전지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에코프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2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단계별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로서 새롭게 각광받는 2차전지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의 대학교를 상대로 채용설명회와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엔 △김재욱 우리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한경민 헝가리어과 과장(이하 한 학과장)△유진일 헝가리어과 교수와 에코프로의 △공효식 상무(이하 공 상무)△전필종 이사△주수한 수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학교와 에코프로는 2차전지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헝가리어과 재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학교는 에코프로의 성공적인 헝가리 법인 안착을 위해 △경제△문화△사회△언어△정치 등 헝가리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우리학교 헝가리어과-에코프로 MOU체결식(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공 상무는 "헝가리 공장 착공 등 이번 해부터 본격화되는 해외 투자 및 진출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외대와의 이번 협약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협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 학과장은 "헝가리는 세계 각국의 배터리 연구 개발 생산의 주 무대가 됐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EcoProBm)의 헝가리 생산기지 구축과 가

동에 헝가리어과 졸업생들이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빈(동유럽·헝가리어 19) 씨는 "최근 헝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식 덕분에 취업 고민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헝가리어과는 지난 1988년 학과가 설립된 후 헝가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이다. 또한 헝가리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이후 헝가리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우리학교 SW인재양성사업단,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에서 주관대학 최고 지원금액 및 최고 평가로 선정돼

지난달 16일 우리학교 SW인재양성사업단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 최고 금액 지원과 최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프트웨어(이하 SW)와 콘텐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인건비△장학금 등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에서 주관 기관으로부터 기업 대응자금을 포함한 약 13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또한 용인시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추가돼 실시될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만 명 육성을 계획 중인 핵심 사업이다"며 "본 사업을 통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SW 개발 분야로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인력 수요와 연결해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산업 수요기반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의 고도화 과정을 통해 글로벌 SW 융합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산학연계 실습 운영과 산학 멘토를 통해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턴십△캡스톤

프로젝트△CTO 및 개발자 특강 등을 정규 교과목에 편성했다. 또한 SW 관련 학과 재학생 외의 비전공자도 SW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 이외에도 해커톤 경진대회와 SW 해외학회 참여 및 논문발표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별도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을 제주대학교(이하 제주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rea Startup Forum)과 협력해 운영한다. 제주대와의 학점 교류 협약을 맺어 수도권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SW 개발자를 양성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는 교육생의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두일철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우리학교의 장점인 언어와 SW가 결합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글로벌 SW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며 "실무 중심의 수업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2 우수 취업 컨설턴트 시상식 개최해

지난달 1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학기 학생진로취업지원 컨설턴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취업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시상식엔 부지영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 선임컨설턴트와 한지영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선임컨설턴트가 각각 선정돼 상장과 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의 진로 취업 상담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향후 학생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컨설턴트 간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우수 취업컨설턴트 포상은 매 학기마다 상담 인원과 만족도를 양캠프로 집계해 이뤄진다. 우수 취업 컨설턴트로 선발된 시상자들은 자신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진로취업컨설턴트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민정 설캠프 학생인재개발처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의 주요 내용인 진로취업 상담에서 컨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고 전했다. 오세홍 글캠프 학생인재개발처장은 "매해 증가하는 1:1 컨설팅과 진로취업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에 대비하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와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과 사회 진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업체들과 협력사업 진행△진로 취업교육 강화△전문통합상담 체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06seongm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4.21(금) ~ 05.04(목)	2023.05.22(월) ~ 06.02(금)
고사장 발표	05.11(목) 15:00	06.08(목) 15:00
면접전형	05.13(토) 10:00 예정	06.1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5(목) 15:00	06.2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29(월) ~ 06.02(금)	06.26(월) ~ 06.3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량 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 평점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용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초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제),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d.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불명확한 흡연구역 문제, 소통의 필요성을 환기해야 할 때

매해 학기가 시작되면 교내 흡연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다. 이는 주로 우리학교의 흡연구역이 명확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하지만 흡연구역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이 얹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학교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흡연구역을 둘러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이용시설의 △관리자△소유자△점유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 내의 모든 교사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금연구역이다. 그러나 이는 건물 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부지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학교 건물 내부만이 법적으로 공식적인 금연구역일 뿐 나머지 구역은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시설의 △관리자△소유자△점유자는 기금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땐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또한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이나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적인 의무성을 따지 않는다. 이처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 흡연구역 설치가 법 조항으로 명확하고 철저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현재 우리학교 내 대부분의 흡연구역은 임의로 지정된 상태다.

흡연구역에 대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교 간의 논의가 오랜 시간 이뤄지지 않아 양측이 인지하는 흡연구역이 다른 문제로 발생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 '도약'(이하 설캠 총학)과 설캠 시설관리팀이 밝힌 교내 흡연구역 중 양측이 동일하게 언급한 공간은 △국제학사 우측 뒤 △사회과학관 좌측 정자 옆 나무 데크△인문관 우측 문 좌측 공간 총 3곳 뿐이었다. 설캠 총학은 설캠의 흡연구역을 △국제학사 우측 뒤△교수학습개발원 옆문 정자△본관과 법학관 사이 공간△사이버관 2층 테라스△사회과학관 좌측 정자 옆 나무 데크△인문과학관 우측 문 좌측 공간이라고 밝혔지만 설캠 시설관리팀이 밝힌 흡연구역은 △국제학사 우측 뒤△도서관 우측 문 공간△사회과학관 우측△사회과학관 좌측 정자 옆 나무 데크△인문과학관 식당 창고 앞△인문과학관 우측 문 좌측 공간으로 서로 인지한 구역이 달랐다. 심지어 학교 측에서 밝힌 일부 흡연구역은 약 10년 전에 지정된 구역으로 흡연자의 발길이 아예 끊긴 경우도 있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흡연구역은 △공학관 2개△기숙사 3개△교양관 2개△도서관 1개△백년관 3개△어문관 3개△인문경상관 3개△자연과학관 4개△학생회관 2개△후생관 1개로 총 24개였다. 한편 글캠 시설관리팀은 △공학관 2개△국제사회교육원 2개△기숙사 3개△교양관 1개△도서관 1개△백년관 2개△소운동장 1개△어문관 1개△인문경상관 1개△왕산문화예술회관 1개△자연과학관 1개△창업교육센터 1개△학생회관 1개△후생관 1개로 총 19개의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 구역들은 모두 지난 2019년에 지정된 흡연구역이었으며 글캠도 설캠과 마찬가지로 흡연구역의 개수와 위치 인식에 있어서 총학과 학교 측의 차이가 존재했다.

◆흡연구역을 둘러싼 문제점

설캠의 경우 △국제학사 우측 뒤△사회과학관 좌측 정자 옆 나무 데크△인문관 우측 문 좌측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흡연구역 경계를 알리는 표시나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마저도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흡연구

역 안내 스티커가 벗겨지고 더럽혀져 인식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사회과학관 좌측 나무 데크는 도서관 출입구와 1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1호에 따라 합법적인 흡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었다.

또한 설캠 흡연구역들은 대부분 통행이 잦은 곳에 위치해 있어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과학관 좌측 정자 옆 나무 데크와 인문과학관 우측 문 좌측 공간은 흡연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개방돼있는 탓에 근처 건물을 출입하는 학생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종국(사회·정외 21) 씨는 "쉬는 시간이 되면 흡연구역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 부스는 통행이 잦은 위치에도 설치가 가능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되지만 이마저도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캠 시설관리팀은 "설캠의 공간이 매우 협소해 흡연 부스



▲우리학교 설캠 국제학사 우측 뒤의 훼손된 흡연구역 경계표시

는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캠 총학 또한 "흡연 부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다른 대학교의 선례와 우리학교의 부지 협소 문제 등으로 인해 흡연 부스 설치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글캠의 경우 설캠에 비해 부지가 넓어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글캠 또한 설캠과 마찬가지로 흡연구역의 경계가 대부분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고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글캠은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위치에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반 흡연 부스 4곳과 스마트 흡연 부스 3곳을 설치해 운용 중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했다. 오태경(응인19) 글캠 비상대책위원장은 "흡연 부스에 사람이 밀집될 경우 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생겨 부스 주변을 지나는 비흡연자가 의도치 않게 간접흡연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흡연 부스 내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흡연 부스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등 다른 대학교에서도 흡연 부스를 운용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교사시설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없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학교 내의 대부분의 흡연구역은 임의적으로 흡연하는 암묵적인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과 학교 측이 공식적인 흡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흡연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떠오르고 있다. 현성민(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매해 흡연구역 문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양 캠퍼스 총학과 학교 측이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배귀주(상경·국통 20) 설캠 총학생회장은 "모든 학내 구성원과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며 "현 구성원들의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조사를 거친 후 학교 당국과의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설캠과 글캠의 흡연구역은 최소 5년 전에 논의된 흡연구역인 만큼 총학과 학교 측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설캠 시설관리팀은 "학생자치기구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요청하는 비를 행정 부서에 제안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자치기구가 학교 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시한다면 학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흡연구역의 설치 위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목받는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흡연구역의 설치 위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적절한 위치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어려운 설캠의 경우 '2022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흡연구역에 지붕이나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흡연구역 수립을 위해선 총학과 학교 측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명한 경계와 표지판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지정되면 학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시설 외의 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흡연구역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와 요구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다. △교육과 지원 제공△명확한 구역 수립△흡연 구역 지정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흡연구역 설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리 없는 기숙사, 갈 곳 잃은 학생들

우리학교에는 △국제학사(이하 국학)△글로벌홀(Global hall)(이하 글홀)△흡스돔(HUFS dorm) 3개의 기숙사가 있다. 지난해 대학 알리미에서 발표한 기숙사 수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1.7:1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10개 대학교 평균인 1.32:1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곧 우리학교

기숙사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 중 상당수가 자취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걸 나타낸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현황△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현황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국학과 글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 설캠 기숙사 입사 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글홀은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 △경상·전라(40%)△강원·충청(20%)△경기·인천(10%)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할당한다. 이후 해당 비율 내에서 추천을 통해 기숙사에 입사할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국학은 신입생의 경우 거주지와의 거리를 100%로 반영해 입사 인원을 선발한다. 그러나 재학생은 학업성적과 거주지와의 거리를 각각 7:3의 비율로 반영해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전 학기 성적이 기숙사 선발에 매우 중대하게 작용한다.

우리학교 설캠 기숙사 비용은 국학과 글홀이 한 학기 기준으로 각각 110만 원과 182만 원이다. 이채운 114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지난 학기 설캠 주변 월세는 평균 45만 원에 수렴했으나 최근엔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올랐고 보증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육박한다. 관리비는 전기·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7만 원을 웃도는 추세다. 즉 월세로 자취를 하는 설캠 학생은 주거비용으로만 한 달에 6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로 자취를 하는 경우엔 최소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이번 해 설캠 주변 월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숙사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전국적인 대학가 원룸촌의 월세 증가세로 인해 많은 대학생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건축비가 올라 신축이 줄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며 “금리가 상승해 학생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방은 부족하다 보니 월세를 5만 원씩은 쉽게 올리는 추세다”고 전했다. 월세뿐 아니라 난방비와 전기세를 포함한 공공요금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며 관리비에 대한 학생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하형(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사가 가능한 기숙사에 선발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다”며 “높은 월세와 관리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길 우리학교 설캠 기획건설팀 대리(이하 김대리)는 “우리학교 설캠 기숙사가 부족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학교 재정 분배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만큼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설캠 기숙사 신축을 위해선 부지가 필요한데 우리학교 내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며 “외부 부지를 매입하려면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등록금 동결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학교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학교 외부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설캠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과의 협의도 필요하기에 학교가 부담하는 고려사항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완공된 우리학교 설캠 기숙사인 글홀을 건설할 때도 주민과 협의를 맺어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현황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엔 흡스돔이 있다. 흡스돔 또한 설캠 국학과 동일하게 신입생은 거주지와의 거리를 100%로 반영하고 재학생은 학업성적과 거주지와의 거리를 각각 7:3의 비율로 반영해 선발을 진행한다. 흡스돔을 이용하기 위해선 각동에 따라 한 학기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일정 수준의 기숙사 식당 식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사항도 생겼다.

글캠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50만 원과 500만 원

선에 수렴하고 있다. 설캠 원룸촌에 비하면 저렴한 값이지만 글캠 인근 A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하면 글캠이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선 원룸 매물 자체가 구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기숙사에 선발되지 않아 자취를 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 학생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글캠의 위치 특성 상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면 학교와 거리가 상당한 곳에 주거지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 기숙사 선발이 절실하다. 글캠 주변의 열악한 교통수단도 기숙사의 높은 수요도에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 입사에 선발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광역버스 및 학생통학버스밖에 선택지가 없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기숙사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교통비 없이 월세와 보증금을 합한 값의 절반 수준만 지불하면 돼 학생들의 부담이 작아진다.

그러나 김지호 우리학교 글캠 기획건설팀 차장은 “기숙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학교 글캠 흡스돔 제2기숙사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지어져 학생의 기숙사비로 비용을 분할해 지불하는데 기숙사에 공실이 나게 될 경우 심각한 재정문제를 불러일으켜 기숙사 신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숙사가 위치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학사 전경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2019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학기숙사 현황과 건립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는 대학교 인근 원룸촌의 건물을 매입해 기숙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학교는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은 안정된 임대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각 지역 출신 학생을 위해 재경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 기숙사는 월 12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저렴한 기숙사 비용을 지불하면 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장점 덕분에 수요가 많다. 하지만 재경 기숙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설캠에서 가장 근접한 재경 기숙사로 꼽히는 중랑구의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경우 경쟁률이 5:1에 달한다. 또한 재경 기숙사는 대학교에서 건설한 기숙사가 아니기에 학교까지의 거리가 천차만별이라 큰 통학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에선 재경 기숙사 외에도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징은 월 6만 원에서 13만 원의 금액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연합생활관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역시 월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값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해 기존 대안

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에 그친 상황이다.

기숙사 수용률 부족 문제는 전국의 대학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숙사 제6, 7생활관 신축을 추진했으나 일부 주민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에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기숙사 설립 후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원룸을 상생학사로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민과의 합의 과정을 거쳐 기숙사 신축을 추진했다. 세종대학교(이하 세종대)는 지난 2013년 지하 5층과 지상 12층 규모의 기숙사 건물 신축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는 듯 했으나 양측의 합의를 도모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광진구△군자동 주민협력위원회△세종대가 한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에 세종대 측은 △신축 기숙사 주차장 유료 제공△운동장과 도서관 개방△지역 임대주택의 간단한 수리비와 도배 비용 지원 등의 방안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마쳤다. 두 대학교 모두 지역체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꾀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학교 기숙사 신·증축에 관해 김 대리는 “지난 14년간 동결된 등록금과 상승한 물가로 다수의 대학교가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학교는 시설관리비 또는 건축비 등의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됐음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학교 기숙사 입사 기준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학교와 달리 서울대학교 학부생활관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 인원을 선발할 때 △소득분위 60%△거리 20%△성적 20%를 기준으로 삼는다.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는 재학생 선발 시 △소득분위 50%△거리 30%△성적 20%의 기준을 통해 선발을 진행한다. 이에 비해 우리학교 기숙사 중 국학과 흡스돔은 입사할 재학생을 선발할 때 거리보다 성적 비율을 더 높게 환산하고 소득분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숙사가 절실한 학생임에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옥진호 우리학교 국학 운영팀 차장은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많으나 이를 모두 수용할 환경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성적을 기숙사 입사에 70%로 반영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고 전했다. 최태경 흡스돔 학사운영팀장도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우리학교의 기숙사 입사 선발 기준에 대해 “학생들도 하여금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거문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타협안을 찾기 위해 입사기준을 완화해보려는 학측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완화로 학교 인근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학교△학생 모두의 고민이 절실하다.

*수익형 민자사업: 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한 후 일정 기간동안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거두는 구조를 가진 사업 방식

국가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문제, 근본적인 취지를 되찾기 위해선

이번 해로 국가장학금(이하 국장) 제도가 시행 11년을 맞았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수혜 대상 여부를 평가로 짓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꾸준히 개편해왔지만 여전히 국장 지급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국장 신청 결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국장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장의 현황 및 발자취△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국장의 현황 및 발자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국장 제도는 매해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하는 국가 장학정책으로 학생들의 배움에 제한이 없도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소득수준과 연계된 국장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대학교 재학생△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장학재단은 학기마다 자체적으로 수혜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분위를 정해 개인별 가계소득을 반영한 후 장학금을 지원한다. 1~10구간 혹은 기초·차상위로 나뉜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10개로 나뉜 소득분위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및 기준 중위소득*과 결부돼 정해진다. 이번 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위 경계값은 △1구간 중위소득 30%(162만 289원 이하)△2구간 중위소득 50%(270만 482원 이하)△3구간 중위소득 70%(378만 675원 이하)△4구간 중위소득 90%(486만 868원 이하)△5구간 중위소득 100%(540만 964원 이하)△6구간 중위소득 130%(702만 1,253원 이하)△7구간 중위소득 150%(810만 1,446원 이하)△8구간 중위소득 200%(1,080만 1,928원 이하)△9구간 중위소득 300%(1,620만 2,892원 이하)△10구간(9구간 초과)이다. 한편 이번 해 국장 정책은 △기초·차상위 가구 학자금 지원 확대△5~8구간 국장 지원액 증가△8구간 이하 다자녀 학비 전액 지원 등과 같이 개편됐다.

국장 제도는 11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따른다. 국장 도입 초기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만을 이용해 소득구간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자와 연금소득 등의 소득항목이 일부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는 소득·재산 자료와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통합했고 △부채를 포함한 조사항목 추가△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활용△소득항목에 예·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 포함△이의신청 절차 도입△장학금 신청 전 기준 공시 등 많은 사항을 추가로 개편했다. 이에 이전보다 폭넓은 정보가 제공돼 더욱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산이 내포한 실질적 의미를 전부 파악할 수 없어 △국외소득△금융자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지속됐다. 실제로 우리학교 에타에 국장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면서 국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왜곡되고 있진 않은지의구심을 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국장 제도의 문제점

국장의 사각지대는 국장 지급 선정 기준의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장학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명절 상여금 및 보험 환산액과 같은 비정기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거나 전산상 등록되지 못한 대출

액이 실질적인 부채로 반영되지 않아 동일 가구원 간 학자금 지원구간이 다르게 책정된 사례가 존재했다. 보건복지부의 전산엔 제1금융권 대출만 등록돼 장기카드대출 등의 부채 기록은 소득 산정 방식에서 제외된 것이다. 예를 들어 용자를 끼고 집을 구매해 수십 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 세금 및 이자 부담이 커지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레버리지(leverag)**를 일으킨 경우 현행제도가 레버리지 과정에서의 대출을 걸러낼 수 없어 손해를 입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하면서 월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돼 국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산정 과정에선 국내재산만 고려되고 국외소득은 아예 반영되지 않는 허점도 나타났다. 심지어 현행 소득분위 산정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부모의 실업급여를 합산하는 항목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돼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이 적절한 금액의 국장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장 지급 선정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에 맞춰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5인 이상 가구에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12만 1,080원(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며 월 소득인정액이 과대 평가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4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통일된 기준이지만 5인 이상 가구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을 차등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선정 기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학생이 먼저 산정 결과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잘못된 소득분위를 정정하기 어렵고 최신화 신청 절차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최신화 신청 총건수는 9만 2,675건에 달하는데 신청 학생 중 92.6%(8만 5,782명)는 당초 소득분위보다 최신화 후 소득분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국장은 지난 11년간 △소득분위별 지급액 확대△소득 산정 방식 개선△저소득층 성적 기준 완화 등 수혜 대상과 수혜액을 늘려왔음에도 신청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큰 개선없이 약 62~64%대에 머물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의 상황에선 등록금 중심의 고착화된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학교 재정지원 중 장학금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분배한다면 국장과 더불어 교내·외 장학금 분배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해 줄 기회가 형성된다. 실제로 미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 종류가 많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국장이 지급되는 소득분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국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국장 공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국장 지급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된 만큼 공시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국민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보 공시 기간의 연장은 많은 이들이 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국장 정책 운용의 적정성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장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건국대학교(이하 건대)는 ‘장학사정관’이란 제도를 운용해 학생 개개인을 면접하고 개인별 가계 사정을 파악해 실질적인 가계 곤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인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장학제도는 확실적인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대외 장학금 혹은 생활비 장학금과 연계해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김지수 건대 장학사정관은 “장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실제로 국장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과 가계곤란 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장이 본래 취지인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 제공을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레버리지: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용어



제2의 고향 영국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을 꼭 가보고 싶었다. 주변에서 교환학생을 떠나기엔 늦었다고 말하는 4학년이었지만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이루고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학교 7+1 파견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레스터(Leicester)에 위치한 레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에 다녀왔다. 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기에 이를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영어권 국가에서 길게 체류한 경험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 살아보면서 다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고 실생활에서도 직접 영어를 사용해보고 싶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매력적인 영국식 영어 발음과 해리포터 보 유국이란 특징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지리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쉽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도 영국으로 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국 대학교 수업은 보통 강의와 세미나(seminar)로 구성되었다. 두 시간 동안 강의를 수강하고 남은 한 시간은 교수와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학업을 우리나라에서 마친 나게 이러한 교육방식은 어색하고 힘들게 다가왔으며 이듬해도 마지막 날까지 수업방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도 한 학기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 과거로 돌아간다면 1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

학업적인 방면에선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만족스러웠다. 특히 대학교 내에 존재하는 클럽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곳에서 매일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선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또한 시간이 나면 스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주변 국가

들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고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엔 기차를 타고 다른 영국의 여러 도시들로 떠났다.

항상 대외활동같은 경력 쌓기나 학업에 치여 살던 내 지난날들이 영국에서 보낸 짧은 4개월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간 4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미래에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으로 나갈 학우들에겐 용기를 내어 타지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특히 레스터대학교에선 매일 기숙사에서 행사를 개최하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 행사에 참여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난 영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의미있었기에 졸업 후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로 결정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영국에서의 시간은 잠시 추억으로 남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7+1 파견 학생 프로그램은 내 인생에서 후회 없는 결정이었기에 이를 고민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

황수민(통번역 · 영어 19)

프랑스

<그리움의 정원에서>

- 남겨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



책 ‘그리움의 정원에서’의 저자인 ‘크리스티안 보뱅’(Christian Bobin)(이하 보뱅)은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자 에세이 작가다. 그는 1951년 프랑스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에서 태어나 문단과 거리를 두고 평생 그곳에서 글쓰기에 전념하며 고독하게 생활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는 △‘가벼운 마음’△‘그리움의 정원에서’△‘아시시의 프란체스코’△‘환희의 인간’을 집필하며 죽음과 자연

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고유하고 유려한 문체로 표현했다. 지난 1993년 보뱅은 성인 프란체스코의 감동적인 삶에 대해 쓴 책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로 권위있는 문학상인 △되마고상△조제프 델타이상△카톨릭 문학대상을 수상했다.

그리움의 정원에서 보뱅이 사랑했던 여자 ‘지슬렌 마리옹’(Ghyslaine Marion)(이하 지슬렌)이 과열성 뇌동맥류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쓴 에세이다. 보뱅이 표현하는 지슬렌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여자’다. 44년에 불과한 그녀의 짧은 생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생전 프랑스어 교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이혼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랑 안에서 빛나는 자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다가오는 행복은 주저없이 붙잡았고 고통과 슬픔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털어냈다. 보뱅은 이런 그녀를 ‘절망과 사랑과 쾌활함이 뒤섞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지슬렌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며 슬픔에 젖었던 보뱅은 글 말미에 다다르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 그녀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해답을 깨닫는다. 그 답은 간단하다. 그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가 생전에 그러했듯이 말이다. 다만 악을 행하지 말고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슬렌을 향한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보뱅은 ‘그녀가 없는 삶을 여전히 축복하고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이 에세이는 단순한 추모글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 남겨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뱅이 지슬렌을 추억하며 깨달은 것처럼 이별을 마주하더라도 상실감에 매몰되기보단 충분히 그리워하며 현재 본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보뱅이 아름다운 문체로 써 내려간 ‘그리움의 정원에서’를 읽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길 바란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2023년 정기시험 안내

국내 최초,
최다 7개 언어 국가공인 인증(듣기·읽기)

FLEX로
플렉스
할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6~02.22	03.19	04.07(금)	04.21(금)
2회	04.27~05.03	05.28	06.16(금)	06.30(금)
3회	08.10~08.16	09.10	09.29(금)	10.13(금)
4회	10.05~10.11	11.05	11.24(금)	12.08(금)

※ 원서접수 마감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학생통학버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선

매 학기마다 학생통학버스 운영방식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이번 해 새로 변경된 학생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거주지와 먼 노선△긴 버스 배차 시간△부족한 버스의 수 등 전반적인 학생

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통학버스의 현황△학생통학버스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학생통학버스의 현황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제약이 많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소재를 둔 글캠프는 용인시 내에서도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글캠프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도착까지 약 40분이 소요된다. △강남대학교△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용인대학교 등은 같은 용인시 소재 대학교임에도 학교와 지하철역 사이의 거리가 도보 30분 내외다. 이는 우리학교 글캠프의 상황과 확연히 비교되는 양상이다. 또한 글캠프 주변 고속도로인 △수도권제2순환도로△영동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 진입에도 약 20분이 소요된다.

연이어 무산된 국가의 도로교통 사업도 글캠프 통학로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1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선 글캠프까지의 통학 거리를 줄이는 경강선 연장이 배제됐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이 연기되면서 글캠프의 교통 접근성 완화 노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역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으로 학교 앞을 지나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소속 버스 △1005번△1113번△1150번△1303번△1500-2번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이용 요금은 학생통학버스보다 높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실제로 광역버스 이용요금은 2,800원으로 최대 2,450원으로 책정된 우리학교 학생통학버스 이용 요금보다 최소 약 350원 가량 높다.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응과 학생들의 입장

학생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대학보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학교 통학버스 운영 방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학기의 학생통학버스 이용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6.3%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학기 학생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 적은 버스 운영 횟수(84.6%)와 거주지 근처를 지나지 않는 노선(69.2%)을 꼽았다. 우리학교 글캠프 재학생 A 씨는 "버스 시간대가 다양하지 않아 오후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생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입석금지 이후 좌석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해 불가피하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캠퍼스 간 이중전공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양 캠퍼스 사이를 오가는 학생통학버스 이용 시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에서 글캠프 소재 학과로 이중전공 중인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애매한 학생통학버스 운영 시간으로 인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글캠프에서의 △식사△조별 과제△학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하교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전했다. 글캠프에서 설캠프

소재 학과로 이중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학교 글캠프에서 설캠프로 가는 노선은 평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오전 10시 50분에 도착하는 노선이 유일하다. 그러나 늦은 출발 시간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설캠프에서 열리는 1교시와 2교시 수업을 수강하기 어렵다. 또한 글캠프로 향하는 회차 출발 시간은 오후 3시 10분으로 오후 강의 수강에도 제약이 있어 수업을 듣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학기 글캠프 제43대 총학생회 '외대의 봄'은 교외 셔틀버스 노선 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취합해 △광화문 하교 노선 신설△기존 노선 증설△버스인승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 의무화△수원-수지 하교 노선 분리△캠퍼스 간 셔틀 증설△학생통학버스 시간표 준수 등의 요구 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 중 기존 노선 증설 사안은 모두 지난 학기에 이행됐으며 수원-수지 하교 노선 분리 요구 또한 수지 노선 신설로 이번 학기 버스 노선에 반영됐다.

그러나 개편된 학생통학버스 노선에도 잡음이 생기고 있다. 우리학교

(등교 2회, 하교 1회)△수원 노선(등교 2회, 하교 2회)△수지 노선(등교 2회, 하교 1회)이다. 그러나 적게 운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많은 학생이 통학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65%의 학생들이 통학버스 정보를 담은 앱 활성화를 희망했다. 현재 '버스인승객' 앱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일부 학생통학버스에만 활성화 돼있어 학생들의 불편함이 크고 앱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학교 글캠프 총괄지원팀 관계자는 "△기존 노선 이용량△민원 확인△승차권 구매 수△학기 말 이용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노선 변경에 반영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고 주변 버스 회사의 노선도 고려해야 하기에 노선 변경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글캠프 총괄지원팀에 따르면 학생 측에서 요구했던 심야 및 저녁 시간대 노선을 증설했음에도 이용률 저조로 폐선된 경우도 존재했다. 이용객 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경제적 수익이 맞지 않아 해당 노선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앱 활성화에 대해서 "학생통학버스 담당 업체가 동영관광으로 바뀌었을 당시 입찰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GPS기기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은 사용하기 어렵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로 다른 지역에 캠퍼스가 존재하는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도 캠퍼스 간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는 하루에 4번 그리고 성균관대는 하루에 7번씩 버스가 양 캠퍼스(이하 양캠프)를 오간다. 중앙대는 안성캠퍼스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왕복 1회 노선만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문-구리 하교 노선△이문-돌곶이 노선△이문-망우-남양주 노선△캠퍼스 간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버스 운영 횟수 자체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적지만은 않다. 그러나 양캠프 간의 거리와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변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결국 학생과 학교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보다 더 정기적인 학생 수요조사 및 학생과 학교 간 지속적 논의가 절실하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 사이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는 이번 학기 노선을 기존 노선에서 일부 수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등교 시간 변경에 따른 전 노선 운행시간 변경△수지 하교노선 신설△잠실-천호-하남노선 감차△수원노선 감차△판교-서현 노선 신설 등이 있다. 그러나 변경된 학생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학기 통학버스 운영방식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답한 인원 중 78.6%가 변경된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경된 학교통학버스 운영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거주지 근처를 지나지 않는 노선(63.6%)△적은 버스 운영 횟수(68.2%)△실제 수요와 다른 노선(45.5%)을 꼽았다. 해당 수치는 학생들의 수요와 실제 변경 사항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학교 학생통학버스 노선 중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이상 운행되는 구간은 △판교-서현 노선(등교 5회, 하교 5회)△이문-구리 하교 노선(하교 2회)△삼성-수서 노선(등교 2회, 하교 1회)△잠실-천호-하남 노선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참사 앞에 무너진 삶의 터전

지난달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Gaziantep) 인근에서 모멘트 규모 7.8에 달하는 역대 최대 강도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본진에 뒤이은 여진과 유발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며 인명피해와 각종 물적·재산상의 피해도 가중됐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며 각종 구호활동과 애도가 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피해△피해가 심화된 원인△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에 관해 알아보자.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난달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에서 모멘트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첫 지진 발생 9시간 후엔 2차 유발지진이 모멘트 규모 7.5로 카흐라만마라쉬(Kahramanmaraş)를 강타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대규모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이하 USGS)의 셰이크맵(Shakemap)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X로 계속됐다.

지진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단연 인명피해다. 지난달 20일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사망자 수를 합쳐 4만 7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일이 넘어가면서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Golden Time)’인 72시간을 넘긴 탓에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이다. 또한 구조와 수색작업이 진전되면서 피해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3일 USG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은 26%에 달한다. 유엔(UN) 역시 사망자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막대하다. 지난달 12일 튀르키예기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예상 재산피해액은 840억 달러(한화 약 1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이스탄불 인근에서 발생한 1999년 이즈미트(İzmit) 대지진에 기반해 추산된 것으로 튀르키예 전체 국내총생산(이하 GDP)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 708억 달러(약 89조 80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104억 달러(약 13조 20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 예측됐다.

문화재나 유물의 손상도 지진이 불러온 피해 중 하나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톨루(Anadolu) 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지안테프 성의 웅벽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심각하게 파손됐다. 또한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 성채△아르슬란테페(Arslanstepe) 언덕 △헤브셀(Hevsel) 정원 등의 유적들도 붕괴되거나 크게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리아에서도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시리아 국가유산박물관국(DGAM)에 따르면 역사 유적이자 고대 아랍식 건축물인 알레포(Aleppo) 성채를 비롯한 여러 건물이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2천3백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의 거취도 문제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 중 38만 명의 이재민만이 임시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이재민은 구조 이후 마땅히 머물 만한 장소가 없어 추위 속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이런 이재민들이 경험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인한 기반 시설 파괴로 보건상황이 열악하고 지진의 여파로 △물△연료△전력△통신 공급이 중단돼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됐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외상도 간과될 수 없는 요소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이재민 알리 씨는 “아이들이 지진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피해가 심화된 원인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질학적 요인이다. 튀르키예에는 △아나톨리아 지각판△아라비아판△아프리카판△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진은 아라비아판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나톨리아판과 충돌해 발생했다. 특히 진원이 대표적인 주향이동단층*인 동아나톨리아 단층에 존재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해 건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피해가 심화된 것이다. 또한 진원까지의 깊이가 18km로 얕았다는 사실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크리스 엘더스 호주 커틴 대학교 교수는 “진원의 깊이가 얕으면 지진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가 지각 깊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표면에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진원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증폭돼 피해를 키운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로저 머슨 영국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1822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지진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축적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의 부실한 내진설계 규정도 피해를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999년 튀르키예에선 북서부 대지진으로 1만 7천여 명이 사망한 이후 내진설계 규정이 강화됐지만 건물의 개·신축 과정에서 이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튀르키예에선 1960년부터 건조물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벌금 등의 행정처분 부과를 면제하는 양성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와 방만한 관리로 부실 건물이 양산돼 결국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도로 남부 지진 피해 지역에서만 최대 7만 5천 채의 건물이 양성화됐다.

시리아에선 내전의 여파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켰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대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조나 원조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시리아 정부가 모든 원조 물품을 자신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다마스쿠스(Damascus)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다. 화산학자 빌 맥과이어는 “시리아에서는 이미 10년 이상에 걸친 전쟁으로 많은 구조물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북부에는 내전을 피해 이주한 다수의 피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결국 장기간 내전의 영향으로 약화된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

이번 지진의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제적인 자원과 원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에 △수도권119특수구조대△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육군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외교부△한국국제

협력단(KOICA) 요원들로 구성된 118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다. 이후 사망자가 늘어나고 매몰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수색 구조보단 이재민 구호에 중점을 두는 21명 규모의 구호대 2진이 튀르키예에 추가로 파견됐다.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약 63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 물품 제공도 결정됐다. 시리아는 우리나라와 미수교 상태인 만큼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이 조달될 예정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인도적 원조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최소 19개의 회원국이 원조에 참여한 가운데 튀르키예에 파견될 구조·탐색작업 부대가 규합됐다. 또한 스페인은 드론·의료인력과 함께 튀르키예에 부상자 치료를 위한 아전병원을 설치했고 핀란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숙소△식량△의료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 유로(약 13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에선 △구조공학자△탐색견△1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차출돼 튀르키예로 보내졌다.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국제적십자 위원회는 시리아 알레포의 공공병원에 수술 도구를 제공했고 그 밖의 의료장비를 △라타키아(Latakia)△알레포△타르투스(Tartus) 등의 도시들에 공급했다. 통조림과 침낭 등 생활필수품도 피해지역에 설치된 여러 보호소에 배급됐다. 월드비전은 구호를 위한 2,500만 달러(약 317억 원) 상당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구조팀△이재민△의료시설 등에 히터와 연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도 이번 지진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응이 한창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 발생일인 지난달 6일부터 1주일간을 국가예도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지진피해를 입은 10개 주에 대해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피해 지역에 5만 명 이상의 구호인력과 53억 달러(약 6조 7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시리아는 그동안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원조를 받지 못했지만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 10일엔 반군 점령지역에 대한 구호 물품 수송을 승인하기도 했다. 압두라흐만 무스타파 시리아 임시정부 총리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과 필수 보온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으로도 튀르키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참사다. 사망자 수와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의 피해회복 및 지역의 재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주향이동단층: 단층의 상반과 하반이 단층면을 따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단층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정치권 로비’ 확인해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형사 6부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하 김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기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하 이 의원)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 4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고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같은 해 이 의원이 김 회장으로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회 국회 공무원,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 논란 불거져

국회회 방호담당관실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은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갑(甲)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사무처와 병무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부당한 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회복무요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선 부처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 의견을 병무청에 접수했다.

경제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전망대

지난 1월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4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은 이번 해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는 1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엔 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 채택

지난달 23일 유엔(UN)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미국 뉴욕(NewYork)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기권 32표△반대 7표△찬성141표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챗GPT의 부상, 인공지능 시대가 던지는 고민거리

이번 해 디지털 분야의 화두는 챗GPT(ChatGPT)다. 지난해 12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Chat Bot)인 ‘챗GPT’는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할 수 있다. 챗GPT는 관련 분야의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르고 그 파장 역시 큰 만큼 뚜렷한 명암을 갖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활용 및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낙현 교수와 전병환 교수를 만나 챗G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김낙현 교수 · 전병환 교수 우리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Q1. 지난해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AI)가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챗GPT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김 교수: 지난 2010년 이후 인공지능 분야에선 신경망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컴퓨터가 영상이나 음성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기계 번역의 정확도도 높아졌죠.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구글(Google)이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란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기계번역△문서 분류△문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어요. 챗GPT는 이러한 트랜스포머에 기반을 둔 기술로 문서를 입력하면 빈칸에 들어가는 적합한 단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Q1-1. 최근 챗GPT의 관련주 및 활용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챗GPT 열풍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 챗GPT는 사람이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는 △나이△문장△정서적 조건 등을 토대로 생성되는 문장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챗GPT는 동일한 명령의 문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실제로 챗GPT는 변호사나 의사를 선발하는 전문 분야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수준의 답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기에 학생들이 과제나 시험에서 챗GPT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기관에선 챗GPT가 작성한 문서를 판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 챗GPT는 기존 챗봇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데 챗GPT 이전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특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된 약인공지능 기술들이에요. 인공지능이라면 말 그대로 사람의 지능을 어느 정도는 모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분야에만 특화됐던 거죠. 반면 챗GPT는 스스로 책을 집필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문맥에 맞고 어색하지 않은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공지능과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챗GPT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세계적 규모의 튜링테스트(Turing Test)*를 통과한 것과 다름없어요. 이제 글을 쓴 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존의 기술들로 만들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큰 관심이 형성된 것 같아요.

Q2. 기존의 챗봇과 비교했을 때 챗GPT가 갖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김 교수: 지난달 구글은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Bard’란 새로운 챗봇을 발표했습니다. Bard는 1조 5천억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웹 문서와 사람 간의 대화 데이터를 통해 훈련됐어요. 챗GPT는 사람이 생성한 문장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RLHF(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Bard도 사람이 선호하는 결과를 이용해 추가 훈련을 수행했어요. 현재 두 챗봇은 문서 생성 측면에서도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둘을 비교하기엔 아

직 이르지만 Bard는 챗GPT가 지닌 프로그램 교정과 작성 기능을 갖추지 못했어요. 향후 두 챗봇을 비롯한 다른 회사 제품들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처럼 서로 약간씩은 상이한 형태로 시장에서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전 교수: 아무래도 기계와 대화를 나눈다고 느껴지면 이질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기존의 챗봇은 기계와 대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챗GPT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기존의 챗봇을 포함한 거대 데이터는 단어를 일일이 정제하기 어렵기에 비속어까지도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은 자의적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비속어를 학습하더라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이와 유사하게 챗GPT는 문장을 생성해낼 때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챗GPT는 이질감이 적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도덕적인 단어들을 실시간으로 선택해 문장을 완성시켜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교육 할 때 옆에서 행동을 판단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 느끼는 바’에 기반해 언어 판단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돼요. 결국 챗GPT는 인간의 관점을 토대로 형성된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기에 기존 챗봇들과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Q3. 지난달 22일 챗GPT가 원고를 쓰고 이를 번역 AI 파파고(Papago)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경우 챗GPT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창출 가능 여부와 저작권 부여 대상이 궁금합니다.

김 교수: 챗GPT가 책이나 연구 논문 저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의 경우 챗GPT가 단독 저자로 논문을 구상해 학회에 투고한 사례는 없고 다른 저자들과 함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는 존재해요. 논문 저술과정에서 챗GPT가 △기술△연구△배경 등의 자료를 분류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 거죠. 그러나 네이처(Nature)와 사이언스(Science) 등 권위 있는 자연계열 학술지에선 챗GPT를 공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 저술 과정에서 챗GPT의 사용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거예요.

전 교수: 아직 명확히 규제돼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 관련된 규제나 법이 비어있는거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제서가 여러 가지 규제나 법리적 테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실제로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저자에게 있다고 봐요. 챗GPT에게 무엇을 작성할지 질문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요를 잡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전 그 사람이 최종적인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Q4.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 교수: 챗GPT를 포함한 모든 챗봇은 현재 존재하는 문서와 인터넷 자료로 훈련됩니다. 사회에선 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챗봇을 훈련시킬 자료들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챗봇은 기존의 문서 데이터에서 단순히 훈련된 시스템일 뿐이므로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은 챗봇이 생성하는 문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 공개가 법률로써 통제되지만 챗봇은 사생활 정보를 법률과 상관없이 공개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챗GPT의 한계를 사용자가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챗봇이 생성하는 문장을 특정 분야에서 악용하려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수준이 특이점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이 이를 통제하기 더 어려워지기에 인공지능 발달과정에서 △기계 시스템 작업 범위△문서의 작성△문서 배포 허용 범위 등을 검토해 법률화해야 합니다.

Q5. IT 시장 조사 업체 ‘한국 IDC’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2조원 가까이 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시장의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인 챗봇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전 교수: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최대한 유사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감각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인지해 판단하죠. 결국 완전한 강인공지능이 되려면 이러한 다차원적인 정보가 결합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등의 형태로 다양해져야 해요. 가까운 사례로 영화 아이언맨(Iron Man)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자비스’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출발을 챗GPT가 시작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인공지능 기법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운 가능성은 계속해서 실현되고 챗GPT가 기존 검색엔진을 대체할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챗봇에 대한 기대와 발전은 계속될 거라 판단합니다.

*튜링테스트(Turing Test): 기계(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 판별하는 실험

**RLHF(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사람이 모델의 결과에 대해 평가한 피드백을 생성된 텍스트의 우수성 지표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그 피드백을 반영한 설계를 해 모델을 최적화 하는 것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맑고 경쾌한 휴대전화 알림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외대학보 수습기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뻐다. 그것은 아마 성취감에서 오는 달콤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란 생각이 밀려들어와 날 짓누르기 시작했다. 방황하며 살아온 나로서 스스로에게 의심이 가는 게 어찌면 당연했다. 더군다나 글 쓰는 능력이 부족했던 내게 '외대학보'란 이름은 무척이나 거대해 보였다.

그렇게 외대학보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 날을 보내고 어느새 수습기자 방중 교육이 시작했다. 수습기자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심성의껏 알려주는 국부장님과 차장 기자가 대단해 보였고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소중한 시간을 쏟으며 수습기자 교육을 열심히 하는 그들과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내 모습이 대비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젠 나만의 착각이었다. 난 여전히 많이 부족했고 부족함을 느낄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으며 이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살다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이 의도치 않게 자연스레 해결될 때가 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부담감도 방중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었다. 방중 교육 마지막 날엔 수습기자들끼리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한다. 이때 작성한 기사를 조판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선배 기자들과 △내용△맞춤법△문맥 등을 수정하는 시간이 있다. 더 좋은 기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지만 한 글자씩 글을 읽어가면서 수정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글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기사가 완성된다. 확실히 처음 작성한 것보다 모든 부분에서 더 나은 글로 탈바꿈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사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하는 게 아닌 수많은 이들과 함께 만드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또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자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삼시어는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마음 한편을 쿡쿡 찌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 막 수습기자 신분을 벗고 정기자가 됐다. 주제를 선정하고 취재하면서 그것이 '외대학보'란 이름으로 인쇄돼 학교에 배포될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어깨는 무거워져만 간다. 학교와 학생을 이어주는 균형 잡힌 글을 써야 하지만 혹여나 그러지 못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럴 때마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더 좋은 주제로 의미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2023년의 첫 번째 순서로 '뒷담하는 기자'란 소중한 지면의 한 자리에 글을 쓰게 되면서 외대학보 사람들과 독자들을 위해 이 한마디를 꼭 담고 싶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황동현 기자

[소설 '광장'을 읽고] 광장과 밀실을 오가는 삶에 대해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유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1960년 11월에 발표된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첫 문장이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해방 후 만주에서 귀국한 대학생으로 이념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던 청년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당하기도 한 그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 그 당시는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 만든 불안한 냉전 구도로 인해 민족의 개념이 거의 상실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를 찾아 떠난 북한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남한과 북한이 아닌 중립국을 택하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본 두 사회는 모두 환멸만이 남아 보람 있는 삶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중립국 인도로 가는 배에서 마지막 자유의 공간인 푸른 바다, 즉 광장으로 몸을 던진다.

그렇다면 이명준이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고 동시에 그를 죽으로 몰아간 상실감의 원인인 광장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광장은 다중과 함께 하는 사회적 삶을 의미한다. 반대로 밀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밀한 개인적 삶이다. 2023년 현재의 사회 문제와 정치적 상황은 최인훈의 소설 속에서 형상화 된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현시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밀실에서 분노를 광장으로 끌고 나와 공적인 담론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국가를 향한 개인의 의견이 밀실을 벗어나 광장으로 나올 때 그 파급력은 훨씬 강해진다. 그렇기에 발언의 주체인 개개인에게 요구

되는 책임감 또한 한층 무거워진다. 그러나 광장의 영향력은 자칫 왜곡된 군중심리를 폭발하게 하거나 광장을 맹목적인 분노 증폭의 현장으로 변질시키기 쉽다.

밀실은 여전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내밀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밀실에서의 사유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자유로운 상상과 성찰 속에서 내면을 한층 깊고 아름답게 갈무리 한다. 다만 밀실은 그 폐쇄성 때문에 때론 정당하지 않은 일들까지 주관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밀실 속 삶이 신독에 의해 꾸러지지 못할 경우 그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수△배신△원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민들이 광장에서 물살이 되고 불길이 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밀실에서 조용히 하루를 되돌아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거나 지인과 전화를 하고 읽지 못한 책들을 오랜만에 들춰보며 삶의 자유를 누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평범한 마음의 결을 가진 국민들을 자꾸만 광장으로 불러내는 사회는 광장이 갖는 오늘날의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회가 아닐 수 없다. 광장의 삶과 밀실의 삶의 균형을 결단과 되새김이 필요한 때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을 보고] 잊지 않기 위한 영원한 호명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여야만 했던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질'은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우발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어'를 공부할 원했던 수용소 대위 '코흐'에게 페르시아어를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처형을 면한다. 코흐는 레자에게 하루에 4개의 페르시아어 단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고 레자는 살아남기 위해 가짜 페르시아어 단어를 조여하며 페르시아인 행세를 이어간다. 날이 갈수록 위와 할 단어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레자는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의 이름을 변주해 단어를 만드는 기지를 발휘하며 어려움을 극복한다.

레자의 아슬아슬한 가짜 페르시아어 수업은 정체가 탄로 날 위기를 여러 차례 모면하면서 간신히 지속된다. 코흐는 처음엔 레자를 의심했지만 결국 주인공을 신뢰하며 우정을 느낀다. 코흐는 수용소의 포로들을 주기적으로 처형하는 날이 올 때마다 레자를 농장으로 빼돌리거나 음식을 챙겨주는 등 특별하게 대우한다. 이후 전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수용소의 모든 증거와 기록을 말소하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코흐는 레자와 함께 혼란을 틈타 수용소를 빠져나온다. 동생을 만나기 위해 페르시아로 가고 싶었던 코흐는 레자를 놓아주고 이란 입국심사에서 레자가 알려준 가짜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다가 체포된다. 한편 연합군의 심문을 받게 된 레자는 수용소에 있던 이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영화는 가짜 페르시아어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웠던 2840명의 포로들의 이름

을 일일이 거명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름이 없는 건 아무도 알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라는 주인공의 대사는 영화가 끝나고도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는다. 수용소에 수감된 모든 포로들은 이름의 존재들이다. 폭력은 익명성으로 매개될 때 더 쉽게 작동한다. 이름의 박탈은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현저히 희석하고 폭력의 정당화를 돕는다. 이름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수용소에서의 그들은 인간적인 서사가 배제된 채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처형될 도구화된 존재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비로소 잔학하고 폭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레자와 코흐가 가짜 페르시아어로 대화를 하며 우정을 쌓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담론이 성립하면서 이전엔 자취를 감췄던 일말의 인간성이 출현한 것이다. 연대와 인권은 상대를 담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타자의 고통과 개인적인 서사를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익명성으로 인한 간극은 좁혀지고 친밀성에 기반한 인격적 교감이 이뤄진다. 한편 호명은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수감됐던 포로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나치의 증거인멸로 부인된 그들의 존재성을 재확인한다. 그들의 인간적 현존을 선포하는 것이다. 호명은 레자가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애도는 이와 같은 호명의 기반 위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3년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역 2023년 1학기 외대학보 1076~1080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모집기간 3월 9일(목)까지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문의 서울캠퍼스 황동현 기자 010-4150-3162/ 글로벌캠퍼스 조수빈 기자 010-8646-4606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국 · 부장 고정칼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며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개강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삼삼오오 모여 떠드는 학생들을 보며 이전 코로나의 여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느낀다. 시작이란 단어가 주는 설렘은 한 학기를 버틸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듯싶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봄이 주는 산뜻함을 만끽하며 힘찬 새 출발을 하길 기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 학교는 흡연구역 및 흡연 부스의 설치가 미흡해 과거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됐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작은 부지로 인해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없어 외부에 간이로 흡연구역을 지정했다. 글로벌캠퍼스엔 흡연 부스가 존재했지만 그 수가 적고 일부 부스에 결함이 발생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컸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하는 사회에선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기에 학교 측의 흡연시설 불비 문제가 이른 시일 내로 해결되길 바란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와 먼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기숙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기숙사의 저조한 학생 수용률 탓에 많은 학생이 값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며 반강제로 자취를 결정하게 됐다. 학교 측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기숙사 신·증축이 어렵다고 일관했지만 다른 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기숙사 문제

는 개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기숙사 선발 기준에 대한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기에 우리학교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 학생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엔 학교 차원에서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한다. 글로벌캠퍼스에서 통학하거나 양 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생통학버스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운행 노선과 버스가 부족해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학교 측에선 학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이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꾸준한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개강호에선 대다수가 문제라고 인식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리학교엔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를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외대학보는 긍정적인 변화의 불씨를 지피는 길라잡이로서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김상연 편집장 04sangyeon@hufs.ac.kr



다음 사회와 '다음 대학'을 지키기 위해

특성화고 여고생 사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다음 사회>는 콜센터 직원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다룬다.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숫자가 너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이 영화는 사회 전체가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불감증을 '다음 사회'라는 선명한 제목으로 고발한다. 즉, 사회의 죽음은 과거형이지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사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다. 그 불길한 예감은 부당한 노동 현장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교육과 노동 현장 어디에도 이런 예감이 작동 중이다. 학교에도 군대에도 다양한 방식의 폭력이 이어져 우리의 무수한 사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회'들과 원치 않는 작별을 계속한다.

억울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은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으로 삶의 벼랑에 내몰리지만, 가해자는 별 반성 없이 부모의 힘과 권력, 법망을 이용한 교묘한 회피 전략으로 인해 끝까지 살아남는다. 심지어 좋은 대학에 가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한다.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녀의 반성을 막는 부모도 있다고 학폭을 다룬 교사는 뼈아프게 고백한다. 가해자는 최고 대학을 나와서 다시 또 부모가 걸은 길 위에서 법적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을 하면서 불감증으로 온갖 횡포를 저지를 것이다.

'다음 사회'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재를 전망한다면, '다음 대학'도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비슷한 위기의식을 우리에게 상기한다. 벼못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지방대의 자조 섞인 우려는 많은 대학에서 정원 미달 학과가 속출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학교가 벚꽃엔딩의 위기에 서 멀다고 마음 놓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당장 양 캠퍼스 유사 학과 통합합 후에 확보된 정원 활용 방안 논의만 보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학과가 후하게 배치되는 정원으로 입결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혹은 새로운 유사 학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 변화를 위한 개혁이 흑이나 섀비른 마음으로 대학의 위기를 앞당겨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여러 가지로 암울한 전망이 우세한 시기에 새 학기를 맞으며 '다음 사회'와 '다음 대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구성원이 죽어가는 현장은 그곳이 교육 현장이든, 노동 현장이든, 그 어디든 건강하지 않다.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이 건강하게 함께 미래를 설계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를 기쁘게 살아내야 할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내세운 어떤 행로도 구성원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레 만들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어디서든 현재를 더 낫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 공간을 더 낫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이 참 많다는 걸 학보사 주간을 하면서 새삼스레 깨닫는데, 이런 열정을 잘 살려내는 것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음 대학'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은 한 사회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 가치를 대학이 계속 지탱하고 있는가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다. 최근 한 공부모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자기 전공 분야의 전통을 고수하는 노력과, 미래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힘을 팽팽히 겨루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를 쓰고 번역하고 연구하는 나는 내심, 세상 모든 게 망해도 시는 살아서 무언가를 주리라는 믿음이 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시 번역은 내 손과 해석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나로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물결을 들여다 볼 겸, 이번 학기에는 사람의 번역과 기계 번역을 함께 교육현장에서 실험해 볼 계획이다. '다음 대학'을 지켜내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은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혁이 당장 눈앞에 근사해 보이는 이익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생명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가치를 되찾고 이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4sangye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김상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2023년도 1학기 동안 외대학보에 만평을 그려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2023년 1학기 동안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그려주실 학생 화백을 모집합니다.

◆활동내역 2023 1학기 외대학보 1078호~1080호를 읽고 만평 제작 (총 3회, 개인당 1회)

◆모집단위 학부생 3명 (서울/글로벌캠퍼스 소속 상관없음)

◆모집기간 3월 9일(목)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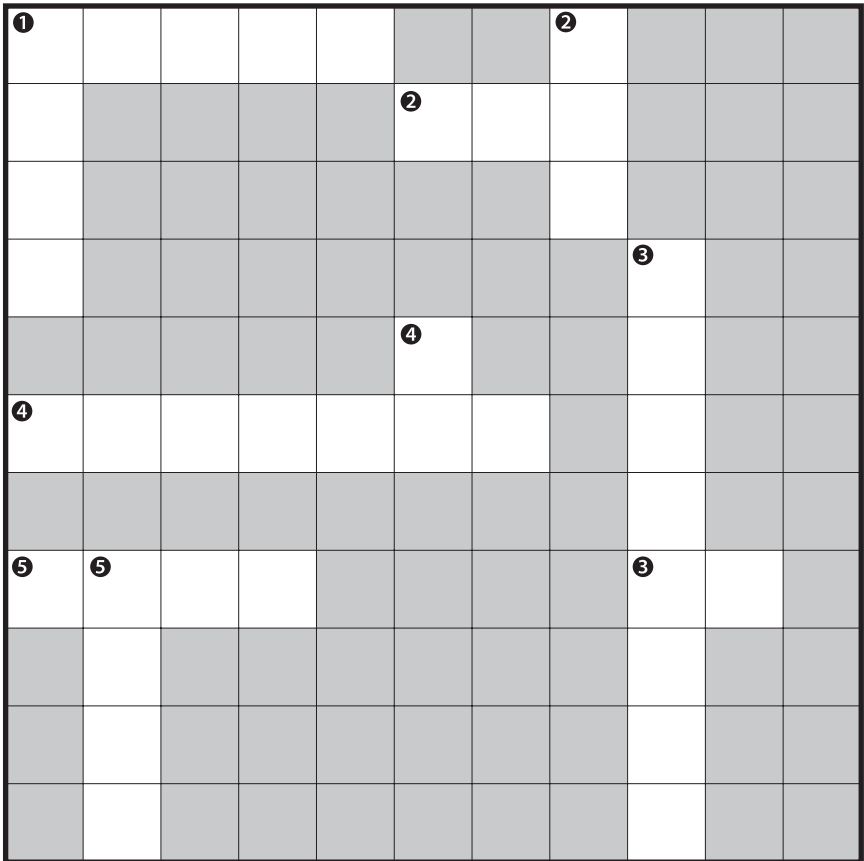
◆지원방법 04sangyeon@hufs.ac.kr 이메일로
1)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호
2)외대학보 1076호를 읽고 해당 호에 실린 기획/심층 기사 주제에 관해 그려낸 한 컷의 만평 제출

◆지원자격 우리학교 내 사안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예리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외대학보 독자

◆활동혜택 만평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문의 김상연 편집장 010-2731-8669

십자말풀이



가로

- 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5면 참조)
- 우리학교 ○○○어과는 예코프로사와 2차전지 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2면 참조)
- 이번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7대 총학생회 이름은 ○○이다. (3면 참조)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법률을 ○○○○○○이 라고 한다.(3면 참조)
- 우리학교 창업동아리 소속 팀 '리브워드' 는 대학상권 외식업 맞춤 홍보 서비스 앱인 ○○○○를 출시하였다.(1면 참조)

세로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는 ○○○, 글로벌홀(Global hall)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4면 참조)
- 이번 튀르키예 · ○○○지진으로 총 사망자 수가 4만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8면 참조)
- 가 매입한 주택을 제공하는 희망 하우스장은 월 6만원에서 13만 원의 금액으로 추가가 가능하다.(4면 참조)
- 시행규칙은 '시설의 △관리자△소유자△점유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명시한다.(3면 참조)
- 캠퍼스 간 ○○○○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양 캠퍼스 사이를 오가는 학생통학버스 이용 시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7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독보적인 콘텐츠의 귀재

정재현 영어 강사를 만나다

정재현(영어 95) 영어 강사(이하 정 강사)는 2006년 해커스토익에서 강사 활동을 시작해 현재 △공단기△경단기△소방단기△영단기에서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와 토익(TOEIC)을 가르치고 있다. 정 강사는 지난 20년 동안 17권가량의 영어 서적을 출판했고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로 학생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한 지텔프 및 토익 만점 강사로서 열정적인 강의를 바탕으로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정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만난 담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담당하신 과목이 영어였어요. 담임 선생님께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만약 영어를 전공하려면 꼭 우리학교 영어학과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학교 영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과거 우리학교 영어학과 내에 원어 연극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에 입부해 매해 두 번의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연극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동안 연극에만 빠져있던 학생이었죠.

Q2-1. 대학 시절 경험했던 활동 중 현재 강사 생활에 도움이 된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했던 연극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연극은 무대 위에 서야 한다는 점이 강사 활동과 비슷하죠. 강사는 많은 학생 앞에 서야 하는데 이때 무대에 섰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원어 연극이어서 수많은 대사를 영어로 외워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어 발음도 좋아졌습니다.

Q3. 영어 강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강사가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원래부터 영어 강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처음엔 통역사가 되고 싶었습니

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대학교까지만 지원해주셔서 통역 대학원을 가려면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강사 생활이 정말 재밌었어요.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난 뒤로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아마 강사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얼굴이 썩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4. 강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강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무료로 공개하던 영어 강의가 있었는데 다른 강의를 준비하기 바빠 해당 강의 개설을 몇 달 미룰까 생각했어요. 그때 한 학생의 편지를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이 무료 강의를 통해 900점이 넘는 토익 점수를 받아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으며 앞으로 열심히 영어 강사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5. 강사가 갖는 직업적 고충이 궁금합니다.

강사 세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회입니다. 대중에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요. 강의를 하려면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시험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텔프의 경우 한달에 최대 4번까지도 시험이 열려요. 그래서 매달 일요일 중 세 번은 쉬지도 못하고 지텔프 시험을 응시합니다. 또한 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고사 시간 내에 외워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답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학생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6. 강사가 되기 전에 성우를 준비하셨습니까. 성우에서 영어 강사로 진로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학교 재학시절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우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직업이기에 호기심이 생겼죠. 대학원을 준비하기 전에 성우를 준비하는 모임에 들어가 연습을 하고 실제로 MBC 성우 시험도 응시했습니다. 물론 낙방했지만 합격했다면 아마 지금쯤 성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우 시험에 떨어지면 서 차선책으로 대학원을 준비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강사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어 강사의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Q7.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어 공부의 운동과 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와 운동 모두 성과를 얻기 위해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듣기△말하기△쓰기 이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수월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 보다는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Q8.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메가스터디(megastudy) 사장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강사는 두 가지가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고 나머지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철저한 이해입니다. 가끔 흡입력있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잘 갈고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흡입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강의 콘텐츠가 부족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영어 콘텐츠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구소를 차리게 됐습니다. 강의 콘텐츠를 잘 만들고 분석하는 것과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또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강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할 때 책의 도움을 자주 받았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Q9. 영어 강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사를 희망한다면 강의력 뿐만 아니라 강의 콘텐츠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의력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면 계속해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강의력의 기반이 되는 건 강의 콘텐츠입니다. 강의 콘텐츠가 탄탄해야 오래 살아남고 인정받는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강의 콘텐츠를 분석하는 건 많은 공부를 요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본인의 영어 실력이 확실해야 하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